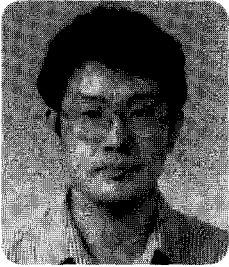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1930년대 과학운동 (3)

2) 발명진흥과 물산장려

김용관의 생각이 어느정도 충실히 담긴 문헌은 발명학회가 재건되기 한 해 전인 193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1931년 3월 김용관은 「동아일보」 “치부비결”란에 “건축용의 연와제조공업일소 자본 조직에 대하여”라는 글을 7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이는 연와제조공업에 참여할 이들을 위한 일종의 기술 및 경영 지침서로서, 1927년 이래 자신이 직접 공장을 경영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벽돌의 제조공정에 관련된 경영 및 기술상의 문제를 상세히 정리한 글이었다.²⁸⁾ 그러나 김용관이 이 글을 기고한 것은 단지 유망한 사업을 알선 하자는 뜻에서 만은 아니었다. 김용관의 진단에 따르면, 당시 조선 사회는 산업의 침체에 기인한 생활 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 경험있고 수준높은 기술자,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했지만 조선에는 이 모든 조건들이 결핍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용관 자신과 같은 이들이 가진 사업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것으로서 이를 다른 동포들에게도 알려 민족 공업화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²⁹⁾



임종태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목 차

- I. 서 론
- II. 발명진흥과 물산장려(김용관과 발명학회)
- III. 발명진흥에서 과학운동으로
- IV. 이화학연구원 설립논의(상이한 과학기술관 및 근대화관의 표출)
- V. 과학운동의 전개와 변질
- VI. 요약과 결론

(고덕은 이병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28) 김용관, 「건축용의 연와제조업소자본조직에 대하여」 〈전 7회〉, 「동아일보」 1931년 3월 8~17일. 이 글에 따르면, 김용관은 1927년 이래 경성 근교에서 소규모 연와제도공장을 경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공장 창립 초기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지자 곧 1929년 말 김해금의 여파로 원료 가격이 앙등하여 채산성이 악화되고 공장 가동마저도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김용관의 차남 김유종의 증언에 따르면, 이후 김용관은 해방 직전까지도 계속 연와공장을 경영했다고 한다. 단, 1930년대 중반 이후로 공장의 소유권은 남에게 넘긴 상태였다고 한다(1994년 6월 21일 김유종과의 인터뷰). 이는 아마도 당시 과학운동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한다.

29) 같은 글 〈제1회〉, 「동아일보」 1931년 3월 8일.

그는 같은 해 5월 「동아일보」에 다시 “기업심을 진작하라”는 글을 투고하였는데, 이 글은 김용관의 현실 진단과 그 극복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의 ‘소자본’ 벽돌공장 경험을 민족 공업화의 전략으로 일반화시켰다. 그가 보기에 조선인의 생활은 ‘외화’, 즉 외국 상품에 지배당하고 있어서 그것이 주위에서 없어진다면 근대적 문화생활은 물론 일상의 의식주까지도 위협받을 지경이었다. 따라서 조선인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면 할수록 외국자본만 부유해지고 반면 자신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질 뿐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외화의 지배를 벗어날 길이 없지는 않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필수품을 자작자급하겠다는 신념만 있다면 극복의 길은 있었다.

대공업을 일으켜 일본 등 외국 자본과 경쟁하기는 힘들겠지만, ‘소규모’ 공업을 일으켜 일상 생활용품을 자급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또한 조선에 풍부히 존재하는 광물이나 원료를 바탕으로 한 산업들, 예를 들어 광업, 도자기, 시멘트 등도 기업가들이 진출해 볼 만한 분야였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산업화 전략은, 조선에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원료를 쉽게 쓴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분야와 외국 상품에 지배당하고 있는 일용물품 분야를 중심으로 소자본으로도 가능한 ‘소규모 공업’을 일으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산업진흥론에 따르면 그가 1927년 이후 시도했던 벽돌공장은 바로 조선에 풍부한 고령토를 이용하여 일상

용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공업의 한 예였던 것이다.³⁰⁾

이러한 소규모 공업진흥론은 김용관만의 독특한 생각은 아니었고, 1923년 이래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한 일군의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입장이었다.

최근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물산장려운동에는 서로 다른 노선을 가진 두 집단이 참여하였는데, 그 하나는 이광수, 송진우, 장덕수 등 동아일보-경성방직 계열로서 소수의 조선인 대자본을 대표하는 집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설태희, 이종린, 안재홍 등으로서 공업생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내수공업자, 중소기업자들을 대변하는 집단이었다.³¹⁾ 전자가 취한 입장은, 대규모 공업을 우선적으로 진흥하여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문명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이들은 전체 민족 중 소수의 민족자본 상층에게서 조선 근대화의 희망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³²⁾

반면 설태희, 이종린, 안재홍 등은 가내수공업 또는 소공업을 장려하여 이를 중심으로 전국의 생산-소비를 연결하는 ‘사회봉공적’인 조합조직을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

소규모 공업을 통해 자신이 먹고 입을 일용물품을 생산하고 이러한 생산단위를 조합조직으로 연결하여 각자의 생산단위가 생산한 일용물품을 조선인들의 소비와 연결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는 한마디로 조선에 밀려오는 일본 등 제국주의의 자본과 상품에 맞서 민족 독자의 산업화를 추구하는 노

30) 김용관, “기업심을 진작하라”, 「동아일보」 1931년 5월 21일.

31)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민족주의우파의 실력양성론」(역사비평사, 1992), 264-289; 윤해동, “일제하 물산장려운동의 초상과 그 이념”, 「한국사론」 27(1992), 281-353.

32) 윤해동, 같은 글, 326-333.

선이였다.³³⁾

김용관이 앞의 글을 발표하던 1931년 경의 조선물산장려회는 바로 이들 반제 비타협적 조합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경성방직 계열의 인사들은 1923년 여름 물산장려운동의 열기가 퇴색하고 총독부 측이 경성방직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곧 운동에서 이탈하였고 이듬해부터는 이른바 자치운동을 전개하여 정치적으로도 타협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해 설태희, 이종린 등은 앞의 계열이 빠져나간 뒤 허약해진 물산장려회를 계속 지켜나갔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자치운동에 반대하고 신간회에 참여하는 등 일제에 대해 비타협적 태도를 계속 견지하였다.³⁴⁾

따라서 김용관과 물산장려회의 민족주의 좌파는 동일한 산업진흥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둘은 이념적으로만 일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31년 당시 그는 발명학회 창립 당시의 동지였던 박길룡과 함께 조선물산장려회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었고 특히 김용관은 그 상무이사로서 이종린, 명제세 등과 함께 물산장려

회의 주도적 인물로서 활동하였다.³⁵⁾ 1924년 발명학회 설립자는 1930년대에 이르러 물산장려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1924년 발명학회를 설립하면서 꿈꾸었던 발명진흥론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단지 일반적인 소규모 '공업' 진흥론자에 머물고 있었을까? 그렇지지는 않았다. 그와 박길룡은 물산장려회 안에서도 발명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용관과 박길룡은 1928년 12월 21일에 조선인 발명가들을 보호, 육성시키는 취지에 설립된 고려발명협회에 창립이사로 참여하였다.³⁶⁾ 이 단체가 창립된 경로나 내부 조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물산장려회측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협회의 이사 중에는 명제세, 정세권, 백홍균 등 물산장려회측의 인사가 대거 포함되었으며, 1929년 창립 1주년 기념준비 위원도 김용관, 박길룡을 제외하면 대부분 물산장려회를 주도하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³⁷⁾

이러한 활동을 반영하듯, 그는 당시 물산장려회

33) 설태희, 안재홍 등의 조합주의적 노선에 대해서는 같은 글, 315-321; 박찬승, 앞의 책, 287-288 참조. 국사학계에서는 대체로 동아일보-경성방직 계열의 인사들에 대해 민족주의 우파 또는 타협적 민족주의, 안재홍 등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민족주의 좌파 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보통 일제에 대한 정치노선상의 타협, 비타협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박찬승과 윤해동은 이를 근대화·산업화 노선까지 확장시켜, 도식적으로 정리할 경우 '우파=대자본 중심의 자본주의화론, 좌파=중소자본 중심의 조합적 산업화론'이라는 구도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구획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아직 폭넓은 실증연구를 통해 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개의 민족주의자들을 살펴볼 경우 그러한 개념에 어긋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그러나 적어도 설태희, 안재홍, 명제세 등 강한 반제의를 견지하였고 조합주의적 방식에 의한 민족 특유의 산업화를 주장했던 인물들이 1923년 하반기 이후 물산장려회에 결집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민족주의 좌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물산장려회라는 독특한 집단의 반제적 조합주의적 경향을 지칭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34) 경성방직-동아일보 계열의 자치운동, 물산장려회의 좌파 민족주의자들과 신간회에 대해서는 이균형, 「신간회 연구」(역사비평사, 1993), 17-104를 참조할 것.

35) 김용관은 1931년 초 조선물산장려회의 상무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같은 해의 정기총회에서 다시 본부 및 경성지회의 상무이사로 선임되었다. 박길룡은 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임되었다. 1931년 조선물산장려회 정기총회 기록은 「장산」 1931년 5월호, 49-52에 실려 있다.

36) 고려발명협회의 창립총회 소식과 창립이사의 명단은 「동아일보」 1928년 12월 25일에 실려 있다. 또한 그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고려발명협회창립」, 「조선일보」 1928년 12월 24일을 참조할 것. 이 글에 따르면 고려발명협회는 일본인 주도의 조선발명협회에 대립하는 조선인 만의 발명가 단체로서 출범하였다.

37) 창립 1주년 행사 준비위원은 박천병, 백홍균, 정세권, 명제세, 유광열, 김용관, 박길룡, 김중협이었다. 「동아일보」 1929년 12월 13일. 그 외에 고려발명협회와 물산장려회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사실로는 협회의 창립 준비위원회가 물산장려회관 내에서 발족되었고, 이후 협회의 사무실 또한 같은 건물에 위치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의 기관지 「장산」에 “발명과 부강”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물산장려운동이 추구하는 민족의 자립적 산업화를 이루는 데는 발명의 진흥이 관건이라는 주장을 폈다. 당시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함께 국가간의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있었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경제전의 승패는 곧 발명을 통해 경쟁력있는 상품을 생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일본 등 선진국은 조선과 같은 후진국의 상품 시장을 이제까지 발명에 대해 무관심했던 태도를 버리고 발명 발견의 장려를 통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차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⁸⁾ 이러한 주장은 김용관이 물산장려운동 이념을 경성고공을 졸업한 기술자, 발명학회를 설립했던 발명진흥론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용관의 발명 중심의 자립적 공업화론이 당시 물산장려회의 중심적인 노선으로 채택되기는 힘들었다. 물론 물산장려회가 발명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은 토산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이를 소비와 연결시키는 데 있었으며, 특히 1931년 당시는 “조선인의 상품을 채집진열케 하며 그 소개선전과 수요공급의 길을 전골하게 할” 목적으로 조선물산진열관의 건립에 매진하고 있었다.³⁹⁾ 이러한 상황에서 물산장려회가 발명진흥 사업에 깊은 관심을 쏟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물산장려회의 산하 또는 자매 단체로 보이는 고려발명협회 역시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였다. 협회의 대외 활동은 창립

당시 발명장려 강연회를 기획했던 것을 제외하면 매년 창립기념식을 거행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⁴⁰⁾

1932년 6월 1일 김용관, 박길룡, 현득영 등은 박길룡의 건축사무소에 모여 그 동안 평화상태에 있던 발명학회의 재건을 결의함으로써 물산장려회의 틀을 벗어난 독자적인 발명진흥 운동을 개시하였다. 이듬해, 학회의 기관지 「과학조선」 창간호에서 학회의 이사장 박길룡은, 발명 또는 기술의 진흥을 중심으로 하여 물산장려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발명학회 재건 인사들의 지향을 분명히 표현하였다.

… 천여자원을 이용해야 우리의 일용물품과 문물제도를 우리 스스로 자작자급하여 우리의 생활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는 수단방법을 원려하여 우리의 발명가를 지도 원조하며 일반 인사에게 발명적 정신을 고조하여 이룩한 앞길의 행로를 밝히는 책임을 자부하고 발기된 발명학회에서는 …⁴¹⁾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김용관과 그의 동료들이 과학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걸었던 길은 ‘과학대중화 주창자’의 길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족의 자주적인 공업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공업진흥론자였고, 나아가 그것에 필요한 기술적 기초를 발전시키려했던 발명진흥론자였다. 그들은 재건된 발명학회를 토대로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1933년 이후 다소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하였다. <계속> **발특9612**

38) 김용관, “발명과 부강”, 「장산」, 1933년 6월호, 21-22.

39) 안재홍,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일진전 그 회관건축의 실현을 보고”, 「장산」, 1931년 2월호, 2-3. 조선물산진열관 설립에 대해서는, “조선물산장려회 최근사정”, 「장산」, 1931년 1월호, 38-39; “조선물산장려회 최근사정”, 「장산」, 1931년 5월호, 49 등을 참조할 것.

40) 강연회 개최 기사는 「동아일보」 1929년 1월 25일에 실려 있다.

41) 박길룡, 앞의 글(주25), 3.